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7월 1일)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조기 철수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 사찰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사진은 8월 9일 조계사를 찾은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사찰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사

파행 잼버리 대회, 불교계 지원 더 빛났다

준비 부실, 폭염 등 악재에 졸속 운영 세계 잼버리대회
템플스테이 영외활동 '단비'
대원들 사찰서 신심 치유해
조계종 전국사찰 문호 개방
조기철수 후 문화체험 제공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실상 파행 운영된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이하 잼버리 대회)를 살린 건 불교계의 지원이었다.

8월 1일 개막한 잼버리 대회는 첫날부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고, 열악한 화장실, 영지 내 물빠짐 문제, 부실 식단 등 총체적 운영 미숙이 드러났다. 결국 영국과 미국은 조기 철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지역 사찰들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단비로 다가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과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등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대회 기간 중인 8월 2일부터 10일간 한국의 전통과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내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사찰들은 기록적인 폭염에 당초 예정된 프로그램을 변경해 경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잼버리 대회를 위해 전 종단적인 지원에 나섰다. 8월 5일에는 전국 사찰에 긴급 지원 지침을 시달했다. 조계종은 "긴급하게 전국 24개 교구본사와 147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조계종 직영 한국문화연수원 등에서 참가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영지나 또는 숙박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새만금 잼버리 법당 등을 찾아 대회 원만회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대회 현장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부터 운영 상황 브리핑을 받은 진우 스님은 서울 · 경기 등에 소재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을 개방해 숙식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대원들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진우 스님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잼버리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어려운 환경과 난관을 극복하면 앞으로 인생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먼 한국에 왔으니 한국의 전통문화 특히 우리 불교문화를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 한국 전통사찰의 향취를 맛보고, 자연과 문화가 주는 감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은 170개 템플스테이 사찰 전부를 대회 기간 개방한다.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고 가셨으면 한다. 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조기 철수된 후에도 불교계의 지원은 이어졌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는 일본 스카우트 단원 1600명이 입소했다. 이들은 10일까지 구인사와 단양에서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는 국내 청소년 대원 80명이 입소해 치유명상 · 고구려북명상 · 탁본체험 · 물레체험 · 타종체험 · 스님과의 차담 등을 체험했다.

조계종은 서울 시내 12개 사찰에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조계사, 봉은사, 국제선센터, 묘각사, 금선사, 진관사, 화계사 등 7개 사찰은 영어로 상시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해 스카우트 대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실제 영국 스카우트 대원 40여 명은 8월 9일 조계사를 방문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으며, 봉은사에도 4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다도, 선명상, 템플투어, 탑돌이 등 다양한 한국불교문화를 경험했다. 또한 수국사, 봉녕사 등에도 스카우트 대원들이 방문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조계종은 "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에도 독일 스카우트팀이 평창 월정사, 예산 수덕사, 경주 골굴사에서 1박2일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회 현장 기사 5면〉

상월결사 · 동국대 '인도 감사순례' 떠난다

기본기관장 회의서 계획안 공유
내년 1월 중순경 10여 일 순례
숙영 제공 印학교에 감사 예정
MOU, 감사 공연 등 추진 계획

서울 · WISE캠 불교교양 교재
공통 발간 추진… 워크숍 개최
11월 29일 포교 주제 학술대회

상월결사(회주 자승)와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상월결사 인도순례' 1주년을 맞아 숙영지를 제공한 인도 현지 학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감사순례'를 떠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8월 9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7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공통 의제에 대한 기관별 사업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상월결사와 동국대는 내년 1월 중순경 '인도 감사순례'를 개최한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었던 길 1167km를 도보로 순례한 대작불사였다.

당시 순례에서 인도 현지 학교들은 순례단이 숙영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했고, 학생과 주민들은 순례단을 환대했다. 이에 순례단 내부에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 교류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라는 명칭이 붙은 만큼 약 10여 일 동안 진행될 순례는 부지를 제공했던 학교와의 상호 교류 MOU, 감사 공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은 "43일간의 인도순례에서 인도인들의 환대와 도움이 원만회향에 많은 도움이 됐다. 숙영지도 현지 교육기관을 많이 활용했다. 내년 순례에서는 해당 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 사전 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건학이념구현 교과목 교육과정 표준화 및 고도화' 과제로 추진되는 불교교양 필수과목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의 서울 · WISE캠퍼스 공통교육 교재 발간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그간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은 통일된 교재와 커리큘럼 없이 강사의 자체 교안대로 지도돼 왔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불교교양 필수과목의 통일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지난 6월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과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 교양융합교육원은 '건학이념구현 교양교과목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합동위원회는 8월 10~11일에는 워크숍을 열고 공통교재 논의 및 윤문작업을 진행한다. 9~10월에는 교재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해 내년 2월까지 출판 작업을 거쳐 1학기부터는 신규 공통교재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합동위원회의 계획이다.

박기련 사무총장은 "종교계가 설립한 대학에 교육부는 종교 관련 교양필수교과목에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동국대의 불교교양필수과목은 워크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과과정도 다르다"면서 "교육부의 엄정한 잣대를 피해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과 교재의 통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통일된 불교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담당 기관에서는 불교교양과목 교재 발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본기관장 회의에 처음 참석한 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 포교' 관련 학술대회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학술대회는 '상월결사, 그리고 한국불교의 포교 여정'(가제)을 주제로 오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기조발제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맡을 예정이며, 상월결사 및 전법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전법과 포교는 불교중흥을 위한 과제"라며 "불교계의 싱크탱크로서 불교학술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